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
CURRENT ISSUES OF THE CHINESE ECONOMY

2022년 3월 23일 | Vol. 24 No. 3
ISSN 2093-341X

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

중국 내 외국인직접투자(FDI)의 최근 동향, 정책 및 평가

KIEP 북경사무소(kucho@kiep.go.kr, Tel: 86-10-8497-2870)

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
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

중국 내 외국인직접투자(FDI)의 최근 동향, 정책 및 평가

차 례

1. 개요
2. 중국 내 외국인직접투자의 최근 동향
3.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관련 정책
4. 평가 및 전망

주요 내용

▣ 중국 내 외국인직접투자(FDI) 규모는 지난 40여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최근 내수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짐.

-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은 2021년 최초로 1조 위안을 돌파하였고, 첨단기술 분야 비중도 30%를 달성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냄.
- 외국인직접투자는 지역적으로 연해지역, 창장 유역 등 주요 경제권에 집중되어 있고, 아시아로부터의 투자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임.
- 최근에는 중국 내수시장을 목표로 하는 투자가 증가하고,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에서의 투자가 늘고 있으며, 그중에서 고급소비재 및 첨단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임.
- 향후 중국 내 임금 상승, 코로나19 확산, 미·중 무역분쟁의 심화가 투자유치의 관건이 되겠지만 현재의 투자유입 증가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.

▣ 중국 정부는 최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외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.

- 2021년 10월 29일 상무부는 「14차 5개년 기간 외자 이용 및 발전 규획」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누적액 7,000억 달러의 외자 유치, 첨단기술 분야 투자 비중 30% 달성을 목표로 함.
- 2021년 12월 27일 발표된 「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」와 「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」에서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는 등 투자 제한 목록을 축소
- 향후에도 네거티브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등 개방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.

▣ 중국 내 전문가들은 향후 외자 유치에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지만 불리한 대외여건 속에서 목표 달성 여부가 주목됨.

- 중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 유치 지원정책,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내수시장 등은 투자유치에 긍정적이며 이를 통해 시장경쟁력 강화와 첨단기술 수준 향상을 이룰 것으로 평가함.
- 미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제재가 지속·강화되는 가운데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세가 지속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.

1. 개요

■ 2021년 10월 29일 상무부는 「14차 5개년 기간 외자 이용 및 발전 규획」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을 구체화함[1].

- 2021년 3월에 발표된 「14차 5개년 규획」에서는 대외개방의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천명하였는데, 이번에 발표된 문건에서는 외자 유치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.
- 향후 5년간 누적 7,000억 달러 규모의 외자를 유치하고,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30%까지 제고할 것을 목표로 함.
- 첨단기술과 서비스업 분야의 개방 확대를 통한 국내 기술수준 향상과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.

■ 2021년 12월 27일,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「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」와 「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」 개정판을 2022년부터 적용할 것을 발표함.

- 2021년 발표에 비해 자동차 분야 외국인투자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는 등 대외개방을 확대함.
- 향후 제조업, 서비스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축소하여 개방 범위를 더욱 확대할 방침임.

■ 외자기업이 중국경제에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강조[2]

- 중국 내 외자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2%에 불과하지만 전체 수출의 40%, 세수의 17%, 직간접적으로 전체 일자리의 10%를 차지하는 등 중국경제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.
  ○ 특히 전자제품과 첨단기술 제품의 수출에서는 외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0%와 60%에 달함.
- 중국 정부는 대외개방을 통해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첨단기술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개방 수준을 높이고 있음.

2. 중국 내 외국인직접투자의 동향

■ 중국 내 외국인직접투자(FDI) 규모는 지난 40여 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, 2021년엔 외국인직접투자

1) 「"十四五"利用外资发展规划」(2021. 10. 29), 『商务部』.
2) 「宏观 | 稳量提质优化结构 , 促进"十四五"利用外资高质量发展」(2021年 第21期), 『中国发展观察』.

금액이 처음으로 1조 위안을 돌파함.

- 2021년 중국이 유치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전년대비 14.9% 증가한 1.15조 위안(약 1,735억 달러)을 기록[3)]

○ 최근 10년 내 처음으로 전년대비 두 자릿 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, 최초로 1조 위안을 돌파함.[4)]
○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중 첨단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30%에 달해 2025년 목표를 조기 달성함.
○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제조업이 전년대비 2.8% 증가한 것을 비롯하여 서비스업은 10% 내외의 증강율을 보였음(표 1 참조).

표 1. 2021년 산업별 중국 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

산업 구분	기업 수 기준		투자금액 기준	
	신규 기업 수(개)	전년대비 증감(%)	투자액(억 위안)	전년대비 증감(%)
총 계	47,643	23.5	11,494	14.9
제조업	4,455	19.4	2,216	2.8
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	9,290	23.7	2,193	19.3
부동산	1,125	-5.5	1,571	11.7
정보통신 및 컴퓨터 서비스	4,053	15.1	1,345	18.8
도소매	13,379	23.7	1,098	34.1

자료: 国家统计局(2022).

■ 2020년 중국 내 외국인직접투자는 코로나19 충격에도 전년대비 증가하며 전 세계 2위를 기록함.[5)]

- 그동안 중국이 유치한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는 개혁개방이 본격화된 1992년, WTO에 가입한 2001년을 변곡점으로 급성장함(그림 1 참조).
- 특히 2020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충격에도 불구하고 세계 주요국 중 드물게 전년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규모가 증가(그림 2 참조)

○ 2020년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점이 투자 경쟁력을 향상시킨 것으로 분석
○ 이로써 외자 유입 규모 1위인 미국과의 격차를 크게 좁힌 것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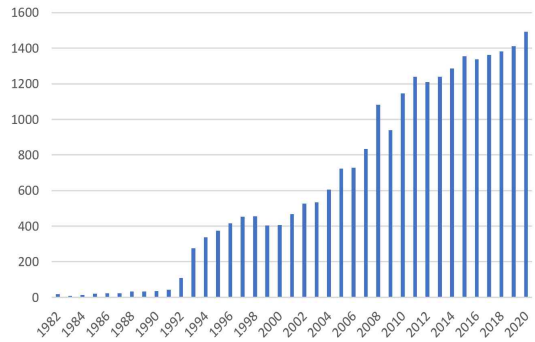
- 지역별로는 경제가 상대적으로 발달한 동부 연해지역과 베이징, 상하이 등 주요 경제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임.

3) 「中华人民共和国2021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」(2022. 2. 28), 『国家统计局』.
4) 「商务部 : 2021年中国吸收外资再创历史新高」(2022. 3. 1), 『央视网』.
5) 「中国外资统计公报」(2021), 『商务部』.

○ 지역(省)별 투자액 비중으로는 장쑤성(15.7%), 광둥성(15.7%), 상하이(12.7%), 산둥성(11.8%) 등의 순으로, 연해지역에 위치한 지역들이 상위권을 차지하였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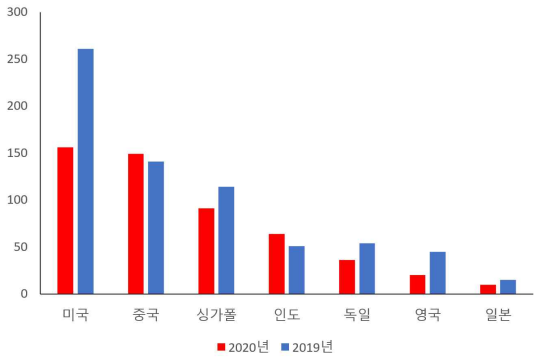
○ 주요 경제권별 투자규모 비중은 징진지지역(베이징, 톈진, 허베이성)이 13%, 창장 경제벨트지역이 47.3%를 차지해 동부 연해지역 및 창장 경제벨트지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.

그림 1. 중국 내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추이 (1982~2020년)



단위: 억 달러
자료: 中国外资统计公报(2021)

그림 2. 주요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비교 (2019~2020년)



자료: WORLD INVESTMENT REPORT(2021)

- 국가별(홍콩, 마카오, 대만 포함)로는 아시아지역에서의 투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, 홍콩 지역의 비중이 70% 이상임.

○ 국가별 투자규모 비중은 홍콩(70.8%), 싱가포르(5.1%), 영국령 버지니아 제도(3.5%), 한국(2.4%), 일본(2.3%) 순으로, 조세피난처 및 아시아 비중이 높음.

○ 홍콩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한 우대정책의 수혜를 받기 위해 본토 자본이 홍콩을 경유해서 다시 본토로 유입되는 우회투자 비중이 높으며, 1998년부터 2017년까지 홍콩의 본토 투자 중 44.8%가 우회투자로 추산됨.[6)]

- 산업별로는 제조업, 부동산 등 7개 업종에 대한 투자규모 비중이 90.8%로 대부분을 차지함.[7)]

○ 전체 투자액 중 첨단산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의 비중은 28.6%를 차지하였으며, 이는 2015년 12.2%에서 5년 만에 2배 이상 상승한 것임(표 2 참조).

○ 첨단산업 중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비중이 투자액 기준으로 3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남.

6) 「香港在经济上对中国内地有多重要？」(2020. 7. 8), 『财经』.

7) 7개 업종은 제조업, 부동산,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, 과학연구 및 기술서비스, 정보통신 및 컴퓨터 서비스, 도소매, 금융을 포함하고 있음.

표 2. 2020년 중국의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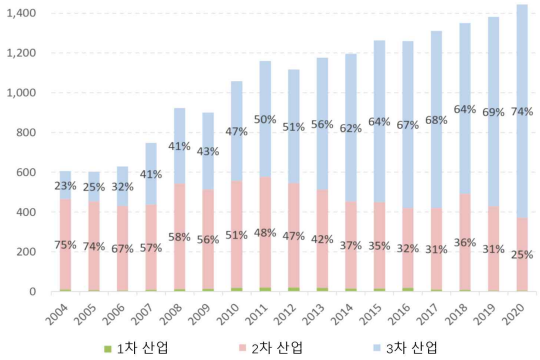
지역 구분	기업 수 기준		투자 금액 기준	
	신규 기업 수(개)	비중(%)	투자액(억 달러)	비중(%)
총 계	38,578	100	1,493.4	100
첨단기술 산업	10,924	28.3	427.6	28.6
첨단기술 제조업	857	2.2	103	6.9
첨단기술 서비스업	10,067	26.1	324.6	21.7

자료: 中国外资统计公报(2021).

그림 3. 중국 내 외자기업의 매출액 추이 (2006~2020년)

단위: 억 달러
자료: 中国金融四十人论坛(2022. 1. 14).

그림 4. 중국 내 외자기업의 산업별 투자액 및 비중 추이(2004~2020년)



단위: 억 달러
자료: 中国金融四十人论坛(2022. 1. 14).

■ 중국사회과학원 쉬치옌 연구원은 최근 10년간 중국 내 외국인직접투자 추이가 3가지 중요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함.[8)]

-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들의 활동영역은 제3국으로의 수출에서 점차 중국 내수시장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음(그림 3 참조).

○ 중국진출 외국기업 매출 중 제3국으로의 수출(중국 외 매출)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60%(799억 달러)에서 2021년에는 34%(1조 4,458억 달러)로 크게 감소함.

○ 2014년 중국진출 외국기업의 제3국으로의 수출 규모는 1조 746억 달러를 달성하였지만, 그 후 점차 하락세를 보임.

○ 2006년 제3국으로의 수출은 내수 매출(중국 내 매출)의 7배였지만, 2016년 그 비중이 역전된 이후에 2020년엔 중국 외 매출은 내수 매출보다 1.5배 이상 높게 나타남.

8) 「徐奇渊 : 外企在华战略的三个重要变化」(2022. 1. 14), 『中国金融四十人论坛』.

○ 이는 중국 내 외자기업의 전략이 “in China for world”에서 “in China for China”로 전환하고 있음을 반영

- 최근 중국 내 외자기업 중에 제조업 비중은 하락하는 반면, 서비스업의 비중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(그림 4 참조).

○ 제조업 분야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전년대비 14%와 12% 감소를 기록하였음.

○ 중국의 제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2011년 521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, 동시에 외국인직접투자 중 공업 분야의 비중도 2011년 48%에서 2020년 25%로 하락

○ 반면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전년대비 13%와 11% 증가하였으며,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중에서의 비중도 2011년 50%에서 2020년 74%로 상승함.

○ 이러한 추세는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해 온 중국 내 산업구조 변화와 일치하며, 서비스업 투자 규모 증가분은 제조업 투자 감소분을 상쇄하는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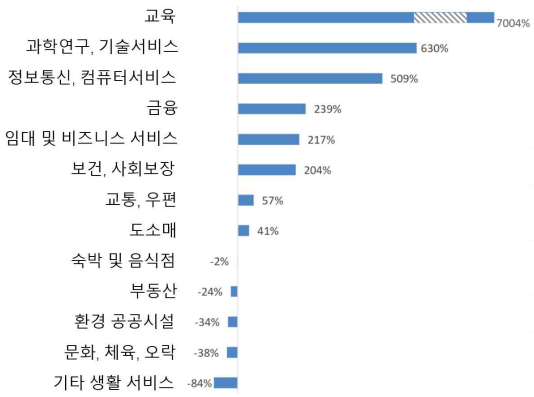
○ 최근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수출비용 상승, 첨단기술을 우대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상 가치사슬의 중·하단에 위치한 제조업에 대한 직접투자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.

- 서비스업 분야 투자는 중국의 산업 및 소비 고도화와 관련한 분야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남(그림 5 참조).

○ 2011년 대비 2020년 서비스업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율을 살펴보면 과학기술 서비스 630%, 정보통신 509% 등 첨단기술과 관련된 업종에서의 투자가 크게 증가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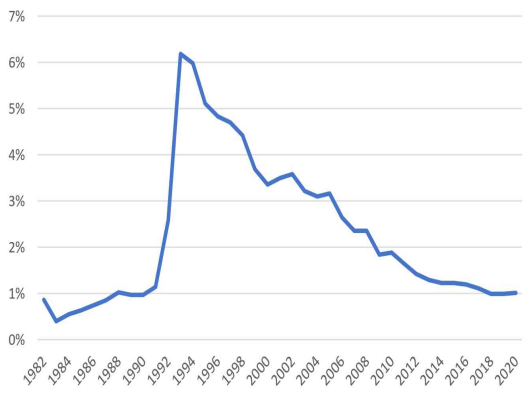
○ 같은 기간 교육 7,004%, 금융 239%, 보건분야 204% 등 중국의 소비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중산층 이상을 겨냥한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함.

그림 5. 중국의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증감 (2011년 대비 2020년 성장률)



단위: %
자료: 中国金融四十人论坛(2022. 1. 14).

그림 6. 중국 GDP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 추이 (1982~2020년)



단위: %
자료: 세계은행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

- 이와 같은 중국 내 외국인직접투자의 변화 추세는 중국의 소비시장 확대 및 고급화, 서비스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재편을 반영하고 있음.

○ 제조업 분야의 투자 감소를 첨단기술이나 고급 소비시장과 관련된 서비스업 분야에서 만회하며 중국 내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임.

○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를 원하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변화된 외국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.

■ 중국 내 임금 상승, 미중 관계 악화, 코로나19 충격 등은 향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[9)]

- 북경대 위먀오제 교수는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중 감소는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정책이 당면한 과제라고 분석함.[10)]

○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개혁개방이 본격화된 1992년 이후 6.19%로 크게 성장한 후에 점차 하락하여 2018년 1%를 기록함(그림 6 참조).

○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외국자본이 기여하는 비중의 감소와 본토 자본의 기여도 확대를 의미함.

○ 동시에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여 외자 유치에 장애요인이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.

- 2000년 이후 중국 내 가파른 임금 상승은 제조업 경쟁력을 하락시켜 생산비용의 비교우위를 상실하는 요인으로 작용(그림 7 참조)

○ 2000년대 이후 도시 생활수준의 향상, 한자녀 정책으로 인한 출산율 감소, 호구제로 인한 노동이동 제한 등 값싼 노동 공급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함.

○ 2000년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수준이었던 중국의 평균 임금은 2016년 주요 동남아시아, 멕시코를 모두 추월하는 수준으로 상승하였음.

- 또한 코로나19 충격은 기존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점을 노출하며 자국 회귀 또는 자국과 인접한 국가에서의 공급망 구축을 부추겨 장기적으로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

○ 중국 생산 후 제3국으로 수출하려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중국 내수시장을 향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

- 미중 간의 무역분쟁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[11)]

○ 미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양국의 관세분쟁이 본격화된 2017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임(그림 8 참조).

○ 2021년 상반기에도 미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3.9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9.5% 증가하였음.

---

9) 「Economics Report of President」(2021. 1), 『US White House』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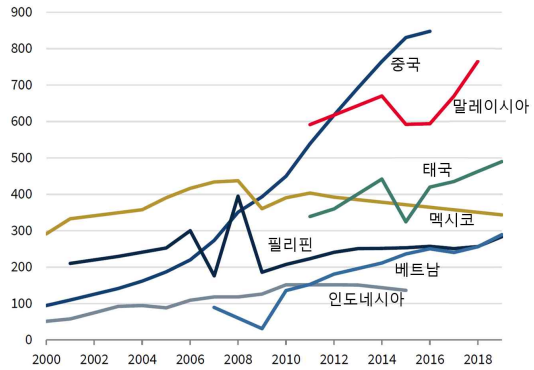
10) Yu, Miaojie(2020). China-US Trade War and Trade Talk. Springer.

11) 「一年来中美贸易战结果 : 美对华投资猛涨」(2021. 12. 28), 『中国人民大学人大重阳』.

○ 양국 간의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미국기업 중 61%는 중국에 대한 투자 기회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, 83%는 중국 외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옮길 계획이 없다고 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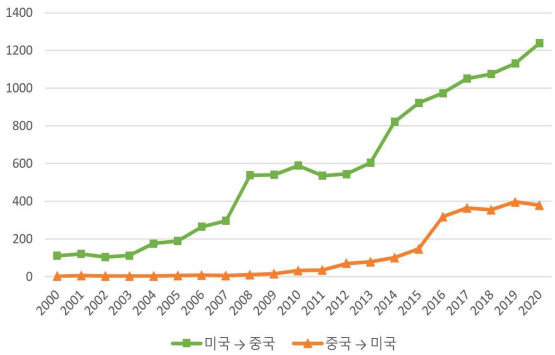
○ 중국의 지속적인 내수시장 확대로 사업 기회가 많아지면서 미국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분석

그림 7. 주요 개발도상국 월평균 임금 비교 (2000~2018년)



단위: 달러
자료: Economics Report of President(2021).

그림 8. 미·중 양자 간 직접투자 규모 추이 (2000~2020년)



단위: 백만 달러
자료: U.S.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

3.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관련 정책

가. 14차 5개년 규획 하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 방향

■ 중국 정부는 2021년 발표한 14차 5개년 규획에서 국내·국제 대순환을 위해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강조[12)]

- 중국 정부는 외자 유치를 기술력 향상과 국내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동력으로 인식

○ 첨단제조, 기술 분야에서의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외국기업의 국가과학기술 프로젝트 참여도 지원하기로 함.

○ 전자통신, 인터넷, 교육, 문화, 의료 등 서비스 분야의 대외개방을 추진하여 내수시장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.

- 지역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외자 유입이 부족한 중부·서부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목표로 함.

12) 「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五年规划2035年远景目标刚要」(2021.3), 『国务院』.

■ 2021년 10월 29일 상무부는 「14차 5개년 기간 외자 이용 및 발전 규획」을 발표하여 정책을 더욱 구체화함.[13)]

- 2021~25년 누적 투자액 7,000억 달러와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외국인투자 유치 강화를 명시함(표 3 참조).
  - ○ 2025년까지 외국인직접투자 중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비중을 30%까지 확대하고, 또한 자유무역시험구의 비중도 19%에 달하게 한다는 목표를 제시함.
  - ○ 특히 디지털, 친환경 등 신흥산업에 대한 외자 유치 확대를 목표로 함.
  - ○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,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에 노력함.
- 외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를 금지하는 목록인 네거티브 리스트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임.
  - ○ 향후 제조업, 농업, 서비스업 등 대부분 분야에서 외국인투자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
  - ○ 그동안 합작법인 형태로만 진입할 수 있었던 분야에서 단독법인 허용을 점차 확대할 예정
  - ○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분야에서는 외국기업을 내국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강조
  - ○ 통신, 의료,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도 개방을 확대하고 진입자격 요건을 완화할 예정

표 3. 14차 5개년 규획 중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목표

목 표	2020년	2025년	누계
실질 투자액(억 달러)	1,444	-	7,000
첨단기술 투자액 비중	29.6%	30%	-
자유무역시험구 투자액 비중	17.9%	약 19%	-

주: 본 표에서는 은행, 금융의 외국인투자액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〈표 2〉의 첨단기술 투자액 비중과 차이가 있음.
자료: 商务部(2021)

나.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

■ 중국 정부는 2017년 이후 외국인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'네거티브 리스트'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에 적용되는 「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」와 자유무역시험구에 적용되는 「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」로 구분됨.

- 「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」는 제한 및 금지산업으로 구분되며 매년 항목을 축소하여 외국인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(표 3 참조).
  - ○ 전국범위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7년 63개에서 2021년 31개로 절반 가까이 축소
  - ○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3년 190개에서 매년 축소되어 2021년 27개가 해당
- 「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」는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현

13) 「"十四五"利用外资发展规划」(2021. 10. 29), 『商务部』.

재 전국 21개 자유무역시험구에 적용

○ 자유무역시험구에 적용되는 네거티브 리스트는 전국범위보다 더 허용범위가 넓음.

표 3.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변화 추이

연도	전국범위		연도	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
	정책 명	세부 구분		
2016년	외상투자 산업지도 목록	- 장려 / 제한 / 금지산업	2013년	190개
2017년		- 네거티브 리스트 63개	2014년	139개
2018년		- 네거티브 리스트 48개	2015년	122개
2019년	네거티브 리스트	- 네거티브 리스트 40개	2017년	95개
2020년		- 네거티브 리스트 33개	2018년	45개
2021년		- 네거티브 리스트 31개	2019년	37개
			2020년	30개
			2021년	27개

자료: 연간 네거티브 리스트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

■ 2021년 12월 2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2022년판 「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」(전국범위 네거티브 리스트)를 발표하며 전년대비 2개 항목이 축소된 31개 항목을 공표함.[14)]

- 그중 자동차제조 분야에 대한 투자 제한을 모두 철폐하여 시장을 완전 개방한 것이 주목할 만함 (표 4 참조).

○ 2018년 전기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 부문, 2020년 상용차 부문에서 외국인 지분한도가 폐지됨.

○ 이로 인해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2018년에 외국계 자동차기업 최초로 100% 독자법인을 승인받아 중국에 진출하였음.[15)]

○ 이번에 승용차 부문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도 폐지되면서 그동안 중국업체들과 합작형태로 진출했던 외국계 회사들이 독자법인으로 전환이 가능해짐.

○ 칭화대 저우스젠 연구원은 국내 자동차기업들이 이미 충분한 국제경쟁력을 갖추었으므로 완전한 대외개방을 통해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으로 평가[16)]

- 네거티브 리스트에 속한 업종에 있는 중국기업의 해외상장을 제한하는 규정도 추가됨.

○ 이는 2021년 12월 24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국내기업이 해외상장을 위해선 일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제한요건을 발표한 직후 반영된 내용으로 볼 수 있음.[17)]

14) 「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（负面清单）（2021 年版）」(2021. 11. 27), 『发展改革委, 商务部』.

15) 「特斯拉在上海成立独资子公司」(2018. 5. 17), 『环球网』.

16) 「负面清单连续第五年缩减 , 我国对外资准入进一步放宽」(2021. 12. 28), 『第一财经』.

17) 「证监会就境外上市相关制度规则公开征求意见」(2021. 12. 24), 『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』.

○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된 업종의 중국기업이 해외에서 상장 시에는 관련 국가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, 해외투자자의 해당기업 경영권 참여를 제한함.

- 희토류 등 주요 광물에 대한 외국인투자 금지 조항은 여전히 유지하였음.

○ 중국 정부는 2021년 12월 기존 5개 국유기업 및 연구기관을 통합해 '중국희토그룹'을 출범시키며 세계시장에서의 희토류에 대한 가격결정권을 더욱 강화[18)]

표 4. 2021년 대비 2022년「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」변동 사항

분야	2022년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삭제된 사항
제조업	- (전문 작업에 쓰이는) 전용차량, 신에너지, 상용차 이외의 자동차 제조회사의 경우 중국 주주의 지분은 50% 이상이어야 함. - 외국기업은 중국 내 두 개 이하의 자동차 제조 합작기업 설립이 가능함.
	- 위성TV 수신시설 및 관련 핵심 부품 생산 금지

자료: 연간 네거티브 리스트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

표 5. 2022년「전국범위」와「자유무역시험구」네거티브 리스트 대조표

분야	(전국 범위)「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」	「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」
농림수산목축업	- 중국 관할 해역 및 내륙 수역 수산물 포획 금지	해당 사항 없음
제조업	- 출판 인쇄는 중국 측이 지배주주가 되어야 함.	
	- 중의약 약재 제조방법 및 응용, 처방 금지	
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	- 시장조사는 중국기업과 합자형태로만 가능하며 방송분야는 중국 측이 지배주주가 되어야함.	- 방송분야는 중국기업이 지배주주가 되어야함. - 외국인의 사회조사 관련 분야 투자시, 중국인 주주의 지분이 67% 이상이어야 하며, 법정대표인은 중국 국적이어야 함.
	- 외국인의 사회조사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금지	

주: 전국범위와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리스트 중 차이가 있는 부분만 기재함.
자료: 2022년 네거티브 리스트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

■ 2021년 12월 2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2022년판「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」에서 전년대비 3개 감소한 27개 항목을 발표함.[19)]

- 전국범위와 동일하게 제조업 2개 항목 삭제, 네거티브 리스트 내 산업에 속한 중국기업의 해외 상장 및 해외투자자 경영권 참여 제한을 반영

18)「稀土新央企成立 相关资产重组合并安排已明确」(2021. 12. 24),『经济观察报』.

19)「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（负面清单）（2021 年版）」(2021. 11. 27),『发展改革委, 商务部』.

○ 자동차와 위성TV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제조업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는 모두 철폐됨.

- 전국범위에서는 유지했던 임대 및 비즈니스 분야의 2개 항목을 1개 항목으로 통합하며 차이는 4개 항목으로 늘어남(표 5 참조).

○ 이로써 외국인의 시장조사 및 방송 분야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.

○ 중국은행 리천 연구원은 「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」에 비해 4개 분야에서 진입 제한 및 금지가 더 감소해 더욱 개방되고 시험구로서의 역할이 확대되었다고 평가함.[20]

4. 평가 및 전망

■ 중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 내 투자환경이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외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전망을 보임.

- 상무부 웨이젠궈 부부장은 2022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이 2,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[21]

○ 2021년(1,735억 달러)과 비슷한 성장세를 보인다면 무난히 2,000억 달러 달성할 것으로 예상

○ 중국의 우호적인 투자환경, 성장하는 내수시장 등은 투자유치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

- 상무부 바이밍 연구원도 중국의 우수한 투자환경으로 외자 유치에 낙관적인 전망을 보임.[22]

○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큰 충격을 입은 반면에, 중국은 정부의 성공적인 방역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는 낙관적이라고 전망

○ 전체 서비스업 160개 분류 중 중국은 이미 120개를 개방할 정도로 개방화 정도가 높고 네거티브 리스트를 점차 축소하기 때문에 투자환경은 더욱 낙관적이라고 강조

○ 특히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경우 네거티브 리스트가 27개에 불과해 더욱 매력적인 투자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함.

■ 중국 내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 중국의 외자 유치가 계획대로 실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.

- 중국 정부가 중점 목표로 하는 첨단기술분야의 외자 유치는 미국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는 부분으로 목표 달성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음.

- 외자 유치 확대는 서비스 분야 국내기업 경쟁력 향상, 첨단기술 유입 등 중국 정부의 목표와 부합하기 때문에 향후 더욱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. KIEP

---

20) 「2021年版外资准入负面清单再缩减」(2021. 12. 30), 『金融时报』.

21) 「魏建国 : 中国吸引外资有望突破2000亿美元 , 中日韩经贸关系有望进阶」(2022. 3. 5), 『每日经济新闻』.

22) 「中国吸引外资规模质量双提升 专家 : 多重因素共同作用」(2021. 12. 27), 『人民日报』.

[참고자료]

1. 중문 참고자료

「“十四五”利用外资发展规划」. 2021.『商务部』(10. 29).

「2021年版外资准入负面清单再缩减」. 2021.『金融时报』(12. 30).

「负面清单连续第五年缩减 , 我国对外资准入进一步放宽」. 2021.『第一财经』(12. 28).

「宏观 | 稳量提质优化结构 , 促进“十四五”利用外资高质量发展」. 2021.『中国发展观察』第21期.

「商务部 : 2021年中国吸收外资再创历史新高」. 2022.『央视网』(3. 1).

「特斯拉在上海成立独资子公司」. 2018.『环球网』(5. 17).

「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（负面清单）（2021 年版）」. 2021.『发展改革委, 商务部』(11. 27).

「魏建国 : 中国吸引外资有望突破2000亿美元 , 中日韩经贸关系有望进阶」. 2022.『每日经济新闻』(3. 5).

「稀土新央企成立 相关资产重组合并安排已明确」. 2021.『经济观察报』(12. 24).

「香港在经济上对中国内地有多重要？」. 2020.『财经』(7. 8).

「徐奇渊 : 外企在华战略的三个重要变化」. 2022.『中国金融四十人论坛』(1. 14).

「一年来中美贸易战结果 : 美对华投资猛涨」. 2021.『中国人民大学人大重阳』(12. 28).

「证监会就境外上市相关制度规则公开征求意见」. 2021.『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』(12. 24).

「中国外资统计公报」. 2021.『商务部』.

「中华人民共和国2021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」. 2022.『国家统计局』(2. 28).

「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五年规划2035年远景目标刚要」. 2021.『国务院』.

「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（负面清单）（2021 年版）」. 2021.『发展改革委, 商务部』(11. 27).

2. 영문 참고자료

「Economics Report of President」. 2021.『US White House』.

Yu, Miaojie. (2020). China-US Trade War and Trade Talk. Springer.

자료 정리: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김동현

(brenze1@naver.com)